

있으면 그 때 번뇌가 녹아 부처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선은 바로 이렇게 일상생활에 일행삼매의 경지로 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어찌 세간과 출세간의 구분이 필요하겠습니까.

선에는 공안 즉, 화두를 드는 선도 있고, 묵조하는 선도 있고, 또 염불하는 선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 좋다 나쁘다 말할 것은 아닙니다.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화두를 드는 선은 참구하기를 좋아하는 지적(知的)인 사람들에게 알맞고, 묵조선은 화두 없이 그냥 앉아서 자기를 비추는 방식이라 의지가 강한 사람에게 적당합니다.

염불선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염불이 무슨 선이냐"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내 마음이 바로 부처라, 내 마음의 본 바탕이 부처라' 느끼면서 염불을 한다면 이것이 바로 염불선입니다. 참선이 무엇입니까. 내 안의 부처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염불선을 선이라고 못할 이유가 어디 있었습니까. 염불선은 지(知)와 정(情)과 의(意)를 모두 조화적으로 구하는 선법입니다. 따라서 염불선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꼭 선을 해야만 깨달음에 가까이 갈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계를 잘 지키고 실천하는 것도 그에 못지 않다고 생각되는데요...

▲물론입니다. 선을 예로 들어 얘기한 것이지만 모든 것을 다 선을 통해 이룰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모두 공부입니다. 아무리 길이 달라도 종착은 경성성불에



◇금산스님은 생활 속에서도 '일행삼매' '일행삼매'를 할 수 있다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를 찾는 길입니다. 철학자 칸트는 집중력을 키우기 위해 하루 2시간씩 방 안에서 창문만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창문을 바라보면서 칸트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망상을 했다 면 위대한 철학자가 되지는 못했을 겁니다. 무엇인가 일념으로 묻고 또 물었을까요.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활 주변에서 흔히 들을 수 있는 물소리, 바람소리, 매미소리에 집중하다 보면 귀가 밝아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무나 강, 하늘이나 숲과 같은 것을 오래 바라보면 눈이 맑아지면 정신이 맑아짐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언제 어느 곳에서도 마음을 집중하고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생활 속에서 그것을

하는 것만 보아도 계율을 지키는功德은 어느 것 못지않게 큼니다.

—일상에서 참다운 삶을 사는 지혜는 어떤 것입니까.  
▲독일에 있을 때 "전쟁을 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것이냐"는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싸우지 않는 지혜를 배워라. 그 지혜는 자나깨나 공부해야만 얻을 수 있다"고 대답해 주었지요. 언뜻 들으면 말도 안되는 소리 같고,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그런 당연한 말이야 누군들 못하겠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으며,

살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탐욕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탐욕은 독선과 아집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 갈등과 대결을 피할 수 없게 되고, 시비가 끊이지 않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또 한가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누구나 갈등에서 벗어나려 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열마나 이물배반적인가. 문제는 이런 이물배반에 우리의 이분법적 사고가 자리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분법적 사고는 단순히 흑백논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를 따로 보는 사고방식입니다. 부처님법은 8만 4천가지지만 결국엔 해탈의 문으로 열결해 있습니다. 아무리 사는 방식이 달라도 근원엔 불성이 있으니 어찌 나와 남이 다르겠습니까.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님들에게 해 주실 말씀은.  
▲선방에서 수좌들을 가르치며 20년을 넘게 살면서 훌륭한 스승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요즘 젊은 스님들은 열기는 왕성하데 노스님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나라든 단체든 율이 바로 서있지 않으면 손을 얹고 공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마음이 좁아집니다.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님들에게 해 주실 말씀은.  
▲선방에서 수좌들을 가르치며 20년을 넘게 살면서 훌륭한 스승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요즘 젊은 스님들은 열기는 왕성하데 노스님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나라든 단체든 율이 바로 서있지 않으면 손을 얹고 공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마음이 좁아집니다.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님들에게 해 주실 말씀은.  
▲선방에서 수좌들을 가르치며 20년을 넘게 살면서 훌륭한 스승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요즘 젊은 스님들은 열기는 왕성하데 노스님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나라든 단체든 율이 바로 서있지 않으면 손을 얹고 공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마음이 좁아집니다.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님들에게 해 주실 말씀은.  
▲선방에서 수좌들을 가르치며 20년을 넘게 살면서 훌륭한 스승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요즘 젊은 스님들은 열기는 왕성하데 노스님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나라든 단체든 율이 바로 서있지 않으면 손을 얹고 공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마음이 좁아집니다.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님들에게 해 주실 말씀은.  
▲선방에서 수좌들을 가르치며 20년을 넘게 살면서 훌륭한 스승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요즘 젊은 스님들은 열기는 왕성하데 노스님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나라든 단체든 율이 바로 서있지 않으면 손을 얹고 공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마음이 좁아집니다.

—출가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스님들에게 해 주실 말씀은.  
▲선방에서 수좌들을 가르치며 20년을 넘게 살면서 훌륭한 스승이 되기가 쉽지 않다는 생각을 늘 했어요. 요즘 젊은 스님들은 열기는 왕성하데 노스님들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아요. 나라든 단체든 율이 바로 서있지 않으면 손을 얹고 공을 할 수 없습니다. 자기 주장만 내세우고 마음이 좁아집니다.

### '내가 부처' 이 마음 놓지마세요 삼독 끊을 수행자리 '지금-여기'

있는 것입니다.  
'반문자심 심성무상도(反問自心 心成無相道)'라 했습니다. '안으로 돌이켜 내 마음에게 묻고 또 물어라 그 마음이 더할나위없는 큰도를 이루리라'는 말입니다. 스스로 묻고 또 묻는 그 마음이 바로 불성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미국 프로농구의 시카고 불스 팀을 잘 아실 겁니다. 이 팀의 필적은 감독은 작년에 팀을 우승으로 이끈 비결을 '무심(無心)'이라는 말로 표현했어. '무심'은 아무 것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만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 팀은 농구만 생각했다고 합니다. 물론 자기 이기는 승부조작도 지적하지 않고서도 됐지요. 모두의 마음이 한 곳으로 모아지니 자연히 유연해지고 각자의 기능이 십분 발휘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수밖에요.  
무슨 일을 하든 전력을 다하는 것, 이것도 결국엔 자기 안의 불성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계율을 지키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의 계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율과는 다릅니다. 불살생은 예로 들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살생은 절대적입니다. 임진왜란때 서산대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살생을 했지만 그것을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서도 그 죄를 다 짓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도 분명히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살생을 해대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사탄에는 자신들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걸프전 당시 미국의 한 목사는 성경에 손을 얹고 공을 합리화했지 않습니까. 불교의 계율은 그래서 지키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계율만 잘 지켜도 깨달음의 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승가에서 출가가 곧 계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

이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계율을 지키는 것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불교의 계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계율과는 다릅니다. 불살생은 예로 들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불살생은 절대적입니다. 임진왜란때 서산대사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살생을 했지만 그것을 합리화하지 않았습니다. 죽어서도 그 죄를 다 짓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하지만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에서도 분명히 살생을 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살생을 해대고 있다고 인정하고 있어요. 사탄에는 자신들과 뜻을 달리하는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걸프전 당시 미국의 한 목사는 성경에 손을 얹고 공을 합리화했지 않습니까. 불교의 계율은 그래서 지키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계율만 잘 지켜도 깨달음의 길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승가에서 출가가 곧 계를 지킨다는 것을 의미

**EBS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연 특혜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 최초 특허청에 의장등록 (제0246178호)  
**승복·법복·누비·바랑판매안내**

행복을 기원하는 지체 기원승유에서는 "수레바퀴"라는 상표로 승복 및 법복을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특허청에 의장 등록 되었습니다.

**특징**

1.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특허청에 연꽃·용자·만자무늬를 의장등록함.
2. 원단에 무늬가 입체적으로 운문하게 들어 있어 아주 복수함.
3. 누비로 만든 저고리, 바지, 방한복에도 무늬가 들어 있으며, 복수하게 제작하여 소매끝에도 바랑이 들지않게 고급스럽게 디자인함.
4. 바랑에도 여러가지 무늬가 있어 아주 세련되고 편리하며 100%방수 처리함.
5. 개량한복처럼 세련되게 디자인 되었으며 원가를 많이 절감함.

| 판매가격표  |           |
|--------|-----------|
| 저고리    | 남 130,000 |
| 바지, 조끼 | 남 130,000 |
| 누비     | 남 180,000 |
| (상, 하) | 남 180,000 |
| 누비방한복  | 남 130,000 |
| (상)    | 남 130,000 |
| 누비조끼   | 남 60,000  |
| 누비방한복  | 남 180,000 |
| (두루마)  | 남 180,000 |
| 바랑     | 30,000    |

스님계 가서 복사 보시하면 수품을 지어 5가지 큰 공복으로 삼계 판판한 소명함.

■ 유사품이나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음  
· 부산, 경남 대리점 (051) 514-8896  
· 지역 대리점 모집 중  
· 지역 판매점 모집 중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 설 유

대구시 동구 선천 3동 74-1 (창신빌딩 1층)  
상담전화 (053)764-4114/팩스 (053)741-4119  
휴대폰 011)9850-4400

## 레이키(Reiki)법이 왜 화제인가?

드디어 『박희준』 레이키(Reiki)법을 확립해 국내외에 보급하기 시작했습니다.  
- 누구나 그날부터 기치로 능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

레이키(Reiki)는 우주 창조와 만물의 조화의 원동력이 되고 있는 근원적인 사랑의 생명 에너지이며, 이것을 질병의 치료와 생활의 다방면에 이용하는 법이 레이키법입니다.

이법을 처음으로 발견하고 개발한 사람은 일본의 우사이 미카도(1865-1926년)씨인데 현재는 미국을 거쳐 세계로 보급이 확대되어 전세계에서 1억명 이상의 인구가 이미 이것을 경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또한 세계 1백개국에 보급되고 있는 21세기 『기의 과학』이기도 합니다.

레이키법에는 어플먼트라는 비법이 있기때문에 누구나 그날부터 기치로 능력자(레이키 요법가)로 만들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박희준)는 동양의 天人相應의 원리를 이용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마음 수련에 힘쓴 결과 이 능력을 더욱 높여 세계 굴지의 어플먼트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무슨 병이나 잘 나을 정도로 힐링 파워(치료 능력)도 높아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공수련을 했어도 기치로 능력자가 되지 못했던 분이나 더욱 치료능력을 보강하고 싶은 분은 주저 말고 오십시오.

교육대상 : 의료 건강 분야 종사자, 호스피스 봉사자, 환자나 그 가족, 일반 국민

교육단계 : 제1-3단계, 3일정도 소요

어려운 국민 경제 상황을 고려해 50만원으로 가격 인하 단행!

### 현대생활 레이키연구회

전화 : 02)720-5682/725-2311 팩스 : 725-2312  
서울시 종로구 신문로 2가 89-2 피어선빌딩 809호실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Reiki.co.kr

## 입 방 안 내

금강선원 선문장은 재가불자들을 위한 참선수행 정진도량입니다.

일년내내 개방하며,  
수행일정은 수행자 본인의 자유의사대로 결정할 수 있으므로  
입·출소가 자유롭고,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수행하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 매주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헤거스님의 법문과 개인 상담이 있습니다.

### 대한불교조계종 선수련원 禪門莊

강원도 홍천군 내촌면 화상대 1리  
전화 033) 433-5845 ~ 6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스님) 법사의 생필(眞本)**  
『五色판체』의 기를 발하는 신비의 기적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세친년세대의 용의 공을 꾸미세요."

승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 선기·명기 발하는 용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그림(수명파 자란) 특별보시!

2000년 대불명상 수상하신 운장법사의 진품명품 TV에서 방영된 달마대사(불자 용자)

복사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 수묵화 필자 후원회 인준 100% 호파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회랑방 (korea art gallery) http://www.korea-art-gallery.org

사업실적, 가장 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33)766-0057 · 0058  
E-mail : unjang21@kornet21.net

● 주문 신청방법 우체국 013698-02-045909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덕희산 雲藏寺 운장선원



### 호산스님의 스님이야기 영호스님

사시 삼철을 관공객이며 등산객에게 몸살을 앓더니 짧은 계절의 긴 한가로움으로 겨울 품에 깊이 잠들어 있다.  
간밤에 내린 함박눈 속에 홀로 버티던 늙은 소나무가 제몸에 걸터앉은 눈 더미의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며 내는 열은 파열음만이 계곡의 바람 속에서 외마디 소리를 질렀을 뿐 겨울산은 그저 침묵 속에 서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렇게 소리 없는 침묵 속에서도 결제 중인 스님들의 치열한 구도의 열기가 얼어붙은 대지를 녹이며 길을 가르고 적정삼매에서 부처님의 흔과 법을 닦고 있으리라.

이제 얼마후면 성도일이다.  
해인사에든 해마다 부처님 성도일에 맞춰 산중의 모든 스님네들이 용맹정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만큼은 강원도의 스님들이나 소임 보는 스님들, 그리고 선방의 수좌스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공양시간을 제외한 모든 시간을 좌선해야 한다.  
오후불식은 물론이고 절대 잠을 자지 못하며 임선 심방이 지나도 큰방에 들어오지 못하면 퇴방조치가 되는 자못 엄격한 일주일간의 용맹정진이다.  
선방에 오래 계신 수좌스님들이야 익숙한 생활일 수 있겠지만 아직 장편때 덜 묻은 강



### 천진한 웃음으로 첫만남을 동안기 어디서 보내는지

원의 학인들은 여간 힘드는 게 아니다.  
특히 오후불식을 하면 배에 힘이 없어 머리는 맑을지언정 좌선의 자세는 흐트러지게 마련인데 그렇게 삼사일 이야 어떻게 버틴다지만 사오일이 지나면 쏟아지는 수마와 다리의 저림이 더욱 깊어져 고통으로 몸과 마음이 경직되기 십상이다.  
처음 입선때 들었던 화두의 몸통은 커녕 꼬리도 보지 못하고 깊은 망상 속에서 해매게 되는데 이를 때 죽비의 효능은 크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 잠들지 않으려 애를 쓰면 쓸수록 눈꺼풀은 더욱 무거워지고 두 무릎이 아프고 저려서 요령 필 공리만 하게 된다.  
그러었다. 앞에 앉은 선방 수좌스님께서 심 곳 미소를 지으며 윈크를 보냈다. 아마도 한 생각 놓고 정진하라는 당부와 긴장의 고삐를 잠시 늦추고 여유를 가지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아닐까. 그것이 영호스님의 첫모습으로 기억 된다.

어서며 "우리 종단이 안고 있는 과제중의 하나가 노후복지 문제인데도 오랫동안 공부하던 스님이 막상 잠시 쉬려고 하면 물 하나 의탁할 곳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위로하는 나에게 "무슨 소리, 내가 좀더 열심히 정진하고 수행했다면 병도 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정색을 하던 영호스님이었다. 그러나 일주연까지 배움하며 너털웃음을 짓고 돌아서는 그 스님의 모습이 왜 그렇게 공허하게 들렸으며 초라하게 보였을까. 언제 또 한번, 함박웃음을 지으며 영호하는 영호스님의 모습을 보게 될까를 생각하니 그저 착잡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서점에서 외상 줄을 그어가며 책을 사 주시던 영호스님. 을 동안기는 어디에서 정진하고 있을지...  
며칠 새에 바람이 무척 날카로워졌다. 그러나 바람이 아무리 날카로워도 겨울산을 잡아서 겨우기는 힘들다. 스님들도 겨울 산처럼 꼭 쥐어 갈수 있는 그런 여정은 언제쯤 마련 되어질까.

● 고려대장경연구소 기획실장